

정보화시대 대응한 한국출판의 진로모색

제13회 출판경영인 세미나 지상중계

정보화사회로 통칭되는 새로운 미래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당면한 한국출판의 위상과 진로는 어떻게 모색돼야 하는가. 한국출판계가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화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며, 출판계 내부의 자체적 노력은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는가.

또한, 출판의 수요창출이란 측면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독서진흥방안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며, 출판산업의 발전을 수행할 핵심적 주체로서 출판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경주 조선호텔에서 개최됐던 제13회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의 논의 가운데 박철호(순천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김수남(소년한국일보 사장), 권병일(출판협회 회장)씨의 발표내용을 다음에 요약, 정리한다.

정보화시대의 출판산업 발전전략

박철호—정보화사회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정보의 축적·처리·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위치가 산업사회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재화로 인식되고 정보기술이 가사·기업활동·행정 등 인간의 여러가지 활동에 도입되어 인간의 제반 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사회의 기업은 그같은 정보화사회가 초래하는 여러가지 환경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 가령 앨빈 토플러는 그것을 ① 생물체계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변화 ② 사회의 여러 세력간 역학관계의 변화 ③ 정보체계의 변화 ④ 정치 및 권력체계의 변화 ⑤ 도덕성의 고양 등 크게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출판산업도 이에서 예외는 아니다. 급속하게 정보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지속하려면, 자의적이며 임기응변적인 경영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화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출판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 개별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행돼야 하며, 둘째 개별 출판사로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출판계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출판계의 정보화 진전 실태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그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이 마련한 '국가사회 전산화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출판분야 첨단화의 문제점으로 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산화에의 관심 ② 업체의 소규모성·노동집약의 영세성·유통구조의 불합리성 ③ 컴퓨터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결여 ④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전산교육 부재 ⑤ 전산화 기술축적 및 신기술 확보·보급의 부족 ⑥ 하드웨어의 수입의존과 핵심기술 낙후 ⑦ 대중화·보편화된 소프트웨어의 부족 ⑧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



박철호교수.

업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출판계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개별출판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는 대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출판사들이 정보네트워크를 일률적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유익하지도 않은만큼 정보화의 필요수준에 걸맞는 출판사끼리 몇개의 기업군으로 집단화해서 정보처리 서비스업자를 이용하는 방향이며, 둘째는 다품종소량생산이란 출판업의 속성에 적절한 정보화 추진으로, 예컨대 주주사무나 재고과약 등 출판공정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전략의 수립으로 추진전략상의 사전계획이 중시돼야 하며, 넷째는 그같이 마련된 정보화 추진전략이 단



김수남사장.

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정보화추진이 수작업과정을 자동처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공정이나 문서형태의 표준화 같은 선행요건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돼야 한다는 점이다.

출판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독서진흥방안

김수남—9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차츰 정보사회로 나아가기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책을 읽기보다는 더 쉽고 편하고 빠른, 다른 방법으로 정보나 지식을 얻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견해도 있지만, 폭넓고 진지한 독서가 아니고서는 국민의 창의력과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없으므로 독서문화의 청신호는 수년후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만 할 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지도 읽는 법, 요리법, 응급 치료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선출판사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전화 720-5990 · 1

사또우치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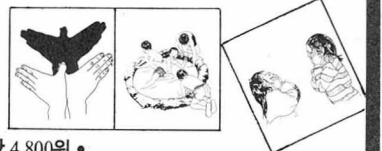
1991년 8월 8일 설악산에서 지구촌 보이 스카우트의 대축제인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야외 생활을 통한 몸과 마음의 단련... 여기에 잼버리를 더욱 신나게 해줄 우리들의 친구 ‘모험도감’ 야외생활 길잡이 ‘모험도감’은 대 자연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개구쟁이들의 친구 「놀이도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놀이도감」과 뛰노는 즐거운 하루. 화초놀이, 야외놀이, 자연에서 논다. 전승놀이, 만들어 논다 등으로 구성되어 창의력, 순발력, 응용력을 길러 주는 재미있는 ‘놀이책’입니다.



오쿠나리 다쓰글
나가타 하루미 그림
김창원 옮김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값 4,800원 ·





권병일회장.

30년전만 해도 우리는 가난에 허덕였다. 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산업화에 매진했고 그 결과 영양실조의 시대를 벗어났다. 그러나, 몸이 잘 살기 위한 경제발전이 치우친 바람에 마음이 잘 살기 위한 문화발전에 소홀하여 이제는 문화실조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은 문화실조의 증상을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독서생활 진작이라는 점에서, 정보화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독서진흥방안은 이제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

우선, 현재 238개소로 인구 18만명당 1개꼴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의 수를 두배로 늘리는 과감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는데, 가령 도서관이 500군데가 넘고 도서관마다 신간도서 구입예산이 확보돼 종당 4권씩만 사도 출판사는 2천권의 판매가 확실해짐으로써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책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점수의 대폭적인 증가도 절실한데, 소규모서점의 경우 전문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단지 안에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것이며, 대형빌딩의 경우 건축비의 1% 이상으로 못박은 환경조각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도서관 설치 및 그 규모의 따른 장서보유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독서생활 진흥의 한 방안이 된다.

이주 현실적인 문제로는, 각급학교 운영에 있어 도서관구입비를 독립항목으로 책정하여 최소한 실험실습비를 능가하는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그밖에 도서상품권의 광범한 보급과 마스크의 독서운동 지원 또한 절실하며, 우리 독서문화의 한 전통인 洗冊禮(책씻이)를 현대적으로 부활·계승하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다.

출판산업의 장래와 출현의 기능강화방안

권병일 -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출판매체의 근본적인 진화와 더불어 출판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출판산업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인 신기술의 선택과 운용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전략 역시 이러한 역사적 전망이 종합적 시각에서 정보화사회의 변화된 생산·소비구조에 맞는 새로운 출판환경을 주체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한다.

90년대의 출판산업은 지금과 같은 인쇄미디어와 전자출판매체로 2분되면서 정보화사회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엄

청나게 늘어나는 지식과 정보수용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의 진출이나 CD-ROM과 같은 이른바 새로운 매체의 개발 보급으로 출판의 정보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정보계, 교육·수험계 출판이 다른 부분보다 크게 신장되어 출판산업의 구조변화도 예상된다. 또한 출판산업은 출판사와 인쇄소, 판매회사, 창고회사 등과 통신망을 구축하고 도서개발, 독자서비스 향상, 유통체계 개편과 영업 판매 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이 출판의 새로운 경영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UR협상결과로 외국의 저작권보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외국출판산업의 침투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이같은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지향해야 할 과제는 출판의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협동화, 전문화 5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출판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출판의 산업화는 난립과 영세성을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의 산업화 또는 기업화는 제작·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유통채널의 정비와 서점의 균점화 대형화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공급권의 부활 조세감면 등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정보화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정보화사회에서 출판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문화적 상업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프로젝트를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편집·제작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출판공정의 전산화가 필요하며 출판매체의 전자화로 출판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CO-ROM과 같은 뉴미디어 상품의 개발 보급과 데이터베이스산업에의 진출준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출판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국제표준도서보호제도(ISBN) 판매서점정보관리제도(POS)의 도입을 서둘러 다양화되어가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출판시장의 동향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하나로 묶는 출판유통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출판유통정보의 일원화와 공동이용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출판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출판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인 출협은, 국가의 정책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출판계 내부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협회 자체의 체질을 개혁 강화해야 한다.

현재 협회는 인적·물적기반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자산업, 데이터베이스 산업 등 타산업의 출판계 신규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의 협회시설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규모나 설비의 낙후 등 새로운 회관의 건립은 화급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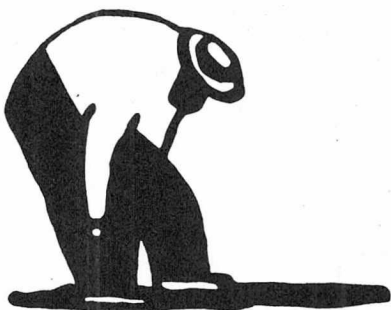
이밖에 협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현재 25%에 머무르고 있는 회원사의 확충, 상근부회장제의 신설, 상설분과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의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기자

시간과 인력을 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모두가 성공자였다

성공자는 스피드를 절약합니다



기획 및 제작 대행

광고제작의 모든 것 / 북디자인 / 회고록 / 단행본 / 기업 홍보물 / 팸플릿 / 카타로그 / 상품패키지 디자인 / 기타 인쇄관련 모든 것

전자조판 시스템

어떠한 PC데이터도 99% 이상 호환 성공 / 아무리 많은 양의 원고도 일시에 처리

아이디어뱅크

출판 원고은행 운영 / 광고 및 출판 COPY 제작 / 기타 출판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

기획
편집인들
찾습니다

만나보고 싶다
인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시대를 앞서가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풍부한 감각을 지닌 당신을



한슬기획

전화 722-3866 / 735-4997 팩스 739-8791
대한민국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